광주·전남 대학 탐방

⑪ 광주여대 '21세기형 인력 양성'

의료보건·복지 특성화 '명성'

천연자원·다문화 분야도 집중 지원

콜마케팅학과 콜센터 전문인력 양성

대한민국의 4년제 종합대학교는 총 200여 학교에 달한다. 그 중에서 '여자대학교'는 국내에 총 7개 밖에 되지 않는다. 이 7개의 여자대학교 중에서 6개의 여대가 서울에 자리잡고 있다. 서울지역의 여자대학교를 제외하곤 전국에서 유일한 4년제 종합 여자대학교가 바로 광주여자대학교이다. 이 때문에 한때 광주여대는 대학을 홍보하는 슬로건으로 '한강 이남의 유일한 여자대학교'를 사용한 적도 있었다.

지금 광주여대는 '강인한 지성과 아름다운 감성을 지닌 여성 인재'를 교육해 사회의 엘리트로 배출하는 대학으로 슬로건을 바꾸고, 그 역할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이는 '한강 이남의 유일한 여자대학교'로 만족할 수 없을 뿐더러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변한 대학의 외부 환경이 지방 유일의 여자대학을 비켜가지 않기 때문이다.

광주여자대학교는 '21세기형(Global Leader) 여성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으로 거듭 나기 위해 의료보건, 특수교육복지, 천연자원개발, 다문화 분야를 대학의 특성화로 선정, 특성화 분야 교육 및 연구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광주여대는 대학 전체를 '21세기형 여성전문인력 양성 특성화 대학'으로 정하고 장기 특성화 목표로 3~4개 분야에서 국내 최상위권 확보 및 세계 수준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 운영체제를 정립함은 물론 특성화에 대학의 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학 특성화 중에서도 광주여대가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의료보건계열'의 특성화다. 간호학과와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대체의학과, 언어치료학과, 치위생학과 등 의료보건계열의 학과들을 개별적으로 특성화하고 있다.

특성화의 결실에 따라 정부·산업·학계가 연계해 물리치료임상센터, 대체의학연구소, 작업과학임상센터를 운영하게 됐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임상경험이 축적돼 취업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도 이들 의료보건계열 학과들은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의료보건계열학과들의 도약은 단순한 취업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성케어전문가 등 해당 분야 전문가를 양성함과 동시에 장애아동 언어치료 등과 같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복지' 분야인 초등특수교육과와 중등특수교육과,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실버케어학과, 언어치료학과, 어린이영어교육학과 등은 종합적으로 연계해 학생 개개인의 교육과 취업은 기본이고 대학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에도 충실하고 있다.

특수분야 학과들은 장애인 전문도서 출판 및 보급, 검사도구 개발 등과 같은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과 시스템을 구축·확대중이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중심 허브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천연자원개발' 분야인 미용과학과와 식품영양학과, 대체의학과는 천연자원을 이용한 제품을 산업화, 실용화할 R&D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며, 이미 국내 최초로 우리밀을 이용한 식품개발 프로젝트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주해 72억원의 국가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여대는 다문화분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언어치료학과 학생들이 언어 발달이 뒤떨어진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의 언어교정 및 교육 봉사에 심혈을 기울이는 등 사회복지학과·실버케어학과·물리치료학과·작업치료학과·미술치료학과 등은 각 과별 특성을 살려 다문화분야 지원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광주여대는 다문화 관련 연구 실적을 확보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다문화 사회로 급격히 변하는 사회의 통합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편 광주여대는 지난 2004년도에 전국 대학 최초로 콜마케팅학과를 신설, 광주지역의 전문계고등학교와 연계해 콜센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어 지역 인재육성과 취업난을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광주여대 오장원 총장은 "대학운영의 기본 방향을 취업과 인성교육의 지속적 강화,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연구기능 활성화 및 집적화, 지역봉사를 통한 지역역할 강화 등으로 설정했다"면서 "강인한 지성과 아름다운 감성을 지닌 여성 인재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대는 의료보건계열을 비롯한 특성화교육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고, 대학인으로서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도록 교육하고 있다. 12일 오후 오장원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등 300여명이 운동장에서 독거노인과 다문화가정 등에 전달할 김치를 담그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이주여성 등 사회진출 창구

동신대 보육교사교육원 14기 1,766명 이수

동신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이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여성들의 사회 활동 진출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

동신대 평생교육원 보육교사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가정 여성 1명이 최초로 교육원 과정을 이수해 어린이집 교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어 올해도 베벌리, 셀라니, 알마오, 마리샤, 비비안, 멜린다 등 6명의 필리핀 출신 이주 여성들이 보육교사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동신대 보육교사교육원은 주간 및 야간으로 운영되는 1년 과정의 보육전문 교육기관으로, 과정을 이수하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해 어린이집 교사로 취업하거나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지난 95년 1기를 시작으로 지난 해까지 14기에 걸쳐 총 1천766명의 유아교육 전문가를 양성해왔으며, 올해도 주간 76명·야간 36명 등 112명이 과정을 마쳐 최근 동신대 국제회의장과 도서관 5층 문화박물관에서 졸업작품전을 가졌다. 한편 동신대 보육교사교육원은 2010학년도에 주·야간 총 15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하고, 지난 2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문의는 동신대 보육교사교육원(061-330-3851~3).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올부터 해외취업 쉬워진다

동강대 안경광학과 7개국 대학과 교류 협약

20년 전에 졸업생끼리 안경점을 개업해 화제가 됐던 동강대학 안경광학과가 올해부터는 해외 진출에 주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동강대학 안경광학과는 지난 1989년 전국 5번째로 신설됐으며, 2003년 3년제로 개편했다.

올해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의 개설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받아 2010학년도부터 학사학위과정 신입생을 모집하게 됐다. 현재까지 18년 동안 약 1천5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이들 중 400여명은 수도권과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안경원을 개원해 성업 중이다.

이제 동강대학은 취업 다각화 전략 차원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있다. 우선 안경사의 해외취업을 위해 동강대학은 7개국 13개 대학과 학생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학기제, 해외인턴십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 매 학기 10여명의 학생들이 대학의 지원을 통해 외국의 대학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안경광학과는 동문회의 장학금 지원, 학과 교수들의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어려움 없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대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온기

호남대학교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이 사회복지서비스 사각지대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 넣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올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사업대학으로 지정받은 호남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총괄 이정규 교수)은 아동집중관리프로그램, 장애인건강증진서비스, 경로당문화공연서비스 등을 펼쳐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호남대 청년사업단은 정부나 지자체 등의 사회복지 안전망에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 서비스를 펼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폭을 넓힘과 동시에 60여명에 달하는 청년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아동집중관리사업단은 2억9천400만원을 투입해 월 평균 235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정과 장애인부모가정 아동 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건강사업증진사업단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평균 100여명에게 수중운동서비스를 제공해 참가자와 그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경로당문화공연사업단은 노인들의 유쾌한 노후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레크레이션 등 오락서비스와 체조, 운동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했다. 1억8천만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광주지역 5개 구청에 등록된 52개 경로당의 1천여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야금연주와 국악 공연 등 실시해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9개국 재외한국학교 교원 29명

광주교육대 교육연수원서 연수

광주교육대 교육연수원이 최근 재외동포교육 및 국제교육·교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국립국제교육원(NIIED)에 의해 '2009 재외한국학교 교원 모국방문 초청 연수'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재외 한국학교 교사들의 동포 교육 소양과 교과지도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통한 재외동포 교육의 내실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재외한국학교 교원 모국방문 초청 연수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며, 오는 12월 21일~31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연수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교사 2명을 비롯한 총 9개국 15개 재외한국학교 교원 29명이 참가한다. 연수 프로그램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별 교수·학습의 이론과 실제, 재외한국학교의 교실 수업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교수 정보의 습득, 한국 초등학교 방문 및 수업 참관을 통한 모국 초등교육에 대한 이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통한 전통문화의 이해 및 모국의 발전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산업체 방문 등이 포함된다.

광주교육대는 이 연수 기회를 활용해 교대부속초등학교를 포함 국내 학교와 재외한국학교 교류 활성화, 국내교사와 재외한국학교 교사 간의 상호 이해 및 협력 체제 구축, 그리고 국내 기업체와 재외한국학교 자매결연 지원 등의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서강정보대 '유아교육제'

서강정보대 유아교육과(학과장 이희신)는 지난 11일 대학 서정홀에서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제·교구'를 주제로 '제20회 유아교육제'를 개최했다.

이날 유아교육제에서는 학생들이 평소에 창안해 활용해 온 교제·교구, 문학포트폴리오, 창작공예, 컴퓨터를 활용한 교수매체 등을 전시하고 2편의 인형극과 합창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